

# 태풍을 막는 것도, 풍년 들게 하는 것도 구세주의 능력 분신의 능력으로 현재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

##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

‘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걸 번역하면 심판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심판지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 갔다는 증거죠?

성경의 역사를 들춰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소라’라는 땅에서 단지파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적마다 매번 이겼던 거죠? 단지파 군대에는 삼손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기운이 장사인지라 혼자서 수백 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고로 블레셋 나라에서 삼손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도리가 없는 고로 계락을 꾸미기를 세 사람의 예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삼손 장수를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손 장수에게 예쁜 여자 셋이 가서 유혹을 하게 되었는데, 대개 기운이 썩 사람이 미련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미녀 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니 블레셋 군인들이 포로가 된 삼손 장수의 눈알을 빼버렸어요. 양쪽 눈을 빼니까 보일까? 안 보이죠?

삼손을 죽이려고 큰 집에 고관들이 잔뜩 모여 재판을 할 때에 삼손 장수가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지만 ‘야, 이걸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로구나!’ 짐작을 하고 이 삼손 장수가 그 집 가운데 기둥 두 개를 힘 좋으니까 뽑아서 던져버렸어요. 가운데 기둥 두 개를 뽑아서 던져버리니까 지붕이 주저앉게 되겠죠? 그렇게 지붕이 주저앉은 바람에 블레셋 나라의 고관들도 다 죽고 삼손 장수도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삼손 장수를 잃어버린 우리 단지파 민족들은 힘을 잃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길 도리가 없는 고로 고심하

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신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해서 이란 나라를 거쳐 이제그대로 중국을 거쳐 우랄알타이 산맥으로 올라갔어요. 우랄알타이 산맥에서 한참 살다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몽고에서 살다가 또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다가 고조선을 설립하고 살게 된 거죠?

##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모르는 것이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까? 역사가들은 알겠지? 역사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인 고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서낭당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서낭당에 빨강 형겅을 달았죠? 또 옛날 처녀들은 다 땀기를 달았죠? 땀기를 땀 때에 빨간 형겅을 달았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양의 피 색깔을 상징하는 빨간 형겅을 달면 사지귀신이 쫓아오지 않는다 해서 빨간 형겅을 달아놨던 거예요.

서낭당에도 빨간 형겅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귀신이 우리 부락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했던 거예요. 빨간 형겅이 달린 걸 본 일은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



구세주 조희성님

들에게 81년도부터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 그랬죠? 공산주의가 90년도에 없어졌죠? 공산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알지만 공산주의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인간의 사상이라는 건, 이념이에요. 이념이라는 건 마음이요.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마음이 바로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다는 게 무슨 요술을 부려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분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 영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이긴자는 분신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분신의 능력이 있는 고로 이 사람의 몸이 수억 조만개의 몸으로 쪼개져서 온 우주에 꼭 차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은 지금 이 사람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분신으로 움직이는 고로 이 사람의 분신이 공산주의자들 마음을 다 알까, 모를까? 공산주의자들은 빨강기 때문에 알까?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고로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없애기 전에 공산주의자가 몇 명이었나 하면 40억이 있었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 60억인데 40억이라면 3분의 2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게 되어 있었죠? 공산화가 완전히 되어버리면 구세주가 사람 살리러 왔는데, 완전히 마귀가 다 되어버리면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먼저 없애버려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고로 40억의 공산주의자들 속에 이 사람의 분신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그 공산주의 영이 되는 마귀의 영을 죽여 버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공산주의가 좋다.’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싫다.’ 하게 되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일제히 세계 공산주의가 폭삭 가라앉고 말았죠?

그 다음에 중국과 이북과 쿠바 나라가 공산주의로 남아 있었던 거죠? 현재는 공산국가가 있어요?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고, 쿠바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고, 이북도 공산국가지지만 김정일이 중국에 가서 시장경제를 배워 가지고 와서 시장경제체제로 이북정책을 바꾸니까 그게 민주주의야,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만 던지면 그대로 되는 걸 보아 이게 틀림없는 구세주야, 가짜 구세주야? 틀림없는 구세주?

## 전지전능한 구세주의 능력

또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한다고 그랬죠? 20년 동안 태풍 불어온 일이 있어요? 태풍 불어온 일이 없죠?

우리나라는 해마다 스물다섯 번에 걸쳐서 태풍이 불어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껏 농사 잘 지어놓으면 태풍이 불어와서 벼가 다 쓰러지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비가 많이 오는 고로 물에 잠긴 벼에서 싹이 나게 되는 고로 흉년 들게 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굶주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거예요.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굶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대항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점령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81년도부터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한다!’ 그랬죠? 여름장마 20년 동안 진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만 던지면 그대로 되는 건 바로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고로 20년 동안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니까 계속해서 풍년 들었죠?

‘우리나라 계속해서 풍년 들게 한다!’ 그래서 풍년 들었죠? 1988년도에 IMF가 왔어도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풍년 들어서 쌀이 많은데 굶어죽을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거기다가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한다! 그랬죠? 남북전쟁 일으키려고 김일성이 얼마나 노력을 한 줄 아세요? 옛날에 80년도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려고 이북에서 비행기 5백대를 띄워 놓고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전을 통해서 압만 명령을 해도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파를 차단하게 한 것도 전지전능의 능력자인 구세주가 했던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이 김일성이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분신이 김일성 앞에 가서 ‘너, 전쟁 일으키면 죽어 이놈!’ 그리고 싹 사라지니까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죠? 전쟁 일으켰다가는 죽었으니까 벌벌 떨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폭격하라는 명령을 못한 거예요. 비행기 5백대가 뚫을 때 남쪽 정부에서 알고 사실 가슴 조이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다시 상륙하게 되니까 안심하게 된 거예요.\*

2001년 5월 25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훈옥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 《5장 모세》

# (10)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다

## (10)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다

공중의 신 마귀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작논에 있는 벼이삭만 온전하게 남은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중권세 잡은 마귀신은 애굽을 사할 동안 캄캄한 어둠속에 파묻히게 하였습니다. 어둠을 틈타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사자마귀가 점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마귀는 사람들 속에 점령한 후, 사람들이 잠잘 때에 기위놀림을 행하여 모조리 심장마비로 죽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둠의 신(神)이 되는 마귀의 장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 삼일 간의 캄캄한 흑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자는 밤중이라도 방안에 불을 끄지 말고 등잔불을 환히 밝히라고 엄중히 일러라.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여 사할 동안 밤낮으로 애굽은 질퍽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니라. 그중에는 한낮에도 방안에 불을 밝혀 온종일 어둠이 거하지 못하게 하라.”

애굽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싸여 사할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습니다. 사할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만 환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허겁지겁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절기를 지키러 가시오. 다 데리고 가시오. 아이들도 데리고 가시오. 그러나 소와 양떼만은 남겨 놓고 가시오.”

모세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제물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축까지 몰고 가겠다는 모세의 단호함에, 애굽 왕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놓을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격노한 왕은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일선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그날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온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애굽의 온 땅이 짙은 어둠으로 쌓인 지 삼일 째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태양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내일 밤이면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자는 동안 심장마비로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미치리니,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냐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하기를 원하나 장래의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불 애굽 사람에게 속한 모든 처음 난 것은 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집집마다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

문지방에 양의 피를 뿌리게 하라. 잠귀가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을 넘어올 수 없게끔 나 여호와가 막으리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사람들도 나의 보호를 받되, 그들의 장자와 모든 가족의 먼저 난 것에 한해서는 잠귀에게 기위놀림으로 죽어가도 나 여호와가 외면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묻기를, “애굽 왕 투모세 3세의 딸아들도 죽게 됩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되면 애굽의 왕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고야 말 것이니라. 아니, 빨리 가라고 너를 내쫓으리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밤부터 새벽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떠날 차비를 갖추되, 저녁

때 피를 빼서 죽인 양 새끼 고기를 구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과 쓴나물과 함께 배불리 먹어두라. 신을 신은 채 급히 먹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 출애굽기 12장

-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 6절: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 9절: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경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 10절: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



첫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

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발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살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찌니라\*  
안젤라